

『한국사상과 문화』 제100집
한국사상문화학회 논문집(2019.12.31)

일연의 가락국기를 중심으로 본 역사 인식

장 정 태
(삼국유사연구원장)

- I. 서론
- II. 일연의 『삼국유사』 저술의 의의
- III. 가야건국과 멸망사
- IV. 허황후의 인도 아유타국 쌍어문 신화
- V. 결론

<논문요약>

허왕후¹⁾가 가야에 도착하면서 김수로왕에게 밝힌 아유타국 공주라는 신분은 조선 중기 정조16년(1792) 김수로왕릉 주변에 들어서는 건축물에 처음 등장하는 쌍어문 문양이 조각되면서 설화적 요소가 역사적 사실로 편입되었다. 이 건축물은 가야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지된 가야시대 건축물을 복원한 것이 아니다. 200-300년 전 건축물을 1천년 이상 이어온 것이란 관대한 학문 풍토가 결국 설화적 요소가 배제된 채 역사 속으로 편입되었다. 더 나아가 조선 인조25년 ‘가락국 수로왕비(駕洛國 首露王妃) 보주 태후 허씨능(普州 太后 許氏陵)’비명은 중국에 등장하는 유사지명에 거주하는 허씨 일족으로 확대 해석되었다. 최근에는 특정 문중을 배경으로 하는 정치집단에 의해 가문 우월신화로 변질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치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부 연구자들의 이탈된 연구태도가 권력에 의해 정착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허왕후 설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여러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문화, 불교문화, 풍수, 민간 신앙적 요소가 습합되면서 독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연의 「가락국기」에 기록되기 전 원형의 모습을 추론할 수 없게 다양한 문화와 만나 변형을 거듭한 끝에 일연에 의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글로 정착된 것이다. 변화를 거듭한 이면에는 전제된 것과 같이 문화적인 요인과 함께 근본적인 덧씌우기는 김유신, 문무왕으로 대표되는 가야계 인물들의 조상숭배 사상이 일정 영역으로 삽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쌍어문, 허왕후 비문에서 발견되는 문양, 글귀가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영속성 유무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조선시대 한양 도성 축, 왕릉²⁾에 승려

-
- 1) 허왕후의 본명은 허황옥(許黃玉)이다. ‘황옥’이란 이름은 중국의 어느 ‘황제’와 관련되어 붙여진 이름으로 본다. 허황후냐 허왕후냐는 논란이 있지만, 수로왕과 짝을 이루는 표현은 ‘황왕후’가 어울린다.(박창희, 『살아있는 가야사 이야기』, 도서출판 이른아침, 2005, p.137)
 - 2) 안순왕후 창릉, 소혜왕후 경릉, 현덕왕후 현릉, 장경왕후 희릉 무석인의 칼날 끝 부분이 안쪽으로 파여 있는 모양은 통도사 천왕문의 지국천왕이 들고 있는 칼의 형태와 같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왕의 장례는 5개월 안에 치러야 했기 때문에 선공감에 소속된 석수장인으로 인역이 부족해 많은 수의

들이 동원되었듯이 지방의 문화재 보수에도 승려들이 참여하게 된다. 그들의 손에 의해 재현된 김수로왕의 쌍어문은 승려들이 사찰에 사용하는 문양을 그대로 모사한 것으로 쌍어문만으로 인도 연계설은 소설적 상상력을 역사기록으로 전하는 것이다.

【주제어】 허황후, 김수로왕, 가야, 파사석탑, 보주태후, 일연, 삼국유사.

승려장인들이 동원되었다. 이때 동원된 승려장인들은 왕실과 관련된 제반 불사를 담당하는 이들이었을 것이다.(문병대, 「조선 전반기 조각사론」, 『한국의 불상조각4-삼매와 평담미』, 예경, 2003, p.307(재인용)

I. 서론

일연(1206-1289)³⁾이 살았던 13세기는 내우외환이 중첩된 고난의 시기였다. 그의 생애를 전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경북 군위의 인각사에 전하는 비문을 들 수 있는데 이에 참고하여 그 생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연은 최충헌이 집권하던 시기에 경주의 속현인 장산군에서 출생(고려 희종 2년 1206년 6월)했다. 그의 출생지는 오늘날 행정구역으로는 경주시 상대리 삼성산 기슭이다. 속성은 김이었으며 그의 처음 이름은 견명, 자는 회연이며 호는 목암이다. 아버지 김언필과 어머니 이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벼슬을 하지 않았으나 후에 일연스님 덕으로 좌복사를 증직 받았으며 어머니 역시 낙랑군부인에 봉해졌다⁴⁾.

3) 국존 일연성사 출가의 학설은 3가지가 있다. ① 일연선사의 9세 무량사 출가설, ② 무량사는 출가가 아니라 당시 무신정권하의 교육기관 부제로 인해 사찰을 교육기관으로 선택했다는 설, ③ 강원도 평창의 진전사(14세) 출가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일연의 출가와 시기,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출가는 지금과 같이 자유롭게 스승과 문중을 옮겨 다닐 수 없는 풍토라서 결국 한 번의 선택이 평생 승려의 전생애를 지배하게 되어 이를 규명하는 것은 귀중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강원도 소재 진전사의 경우 이 사찰은 신라 선문 구산의 효시가 된다. 아울러 가지산파의 초조, 도의국사가 창건한 사찰로 이후 엮겨, 체징으로 이어졌다. 일연의 생애와 관련 발표된 논문으로는 김두진, 「일연의 생애와 저술」, 『전남사학』19, 전남사학회, 2002. 김태영, 「일연의 생애와 사상」, 『삼국유사의 문예적 연구』, 새문사, 1982. 고운기, 「일연과 어머니」, 『민족문화사연구』11, 민족문화사연구, 1997. 민영규, 「일연과 진존숙」, 『학림』5, 1983. 인권환, 「일연론」, 『한국문학작가론』, 형설출판사, 1982. 임기중, 「일연화상의 생애와 문학」, 『동국대논문집』29, 동국대, 1990. 안계현, 「일연」, 『한국의 사상가 십이인』, 현암사, 1975. 정병삼, 「일연」,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상, 창작비평사, 1994. 전해주, 「일연의 화엄사상」, 『아세아에 있어서 화엄의 위상』, 대한전통불교연구원, 1991. 채상식, 「보각국사 일연에 대한 연구」, 『한국사연구』, 1979. 「일연의 사상적 경향」, 『한국문화연구』1, 1988. 「일연」, 『한국사시민강좌』2, 일조각, 1988.

일연이란 이름은 후일에 개명한 것이다.

일연의 생애를 3기로 구분해 보면 첫째는 50세에 이르기까지 불문에 들면서 구족계를 받고 포산(지금의 현풍) 지역에 거주한 시기로, 이때에 학문적 소양이 갖추어 졌다. 둘째는 50대에서 60대 초반 정안의 초청으로 남해의 정암사나 길상암 및 서울의 선월사에 거주한 시기로 수선사의 범맥을 계승한 시기다. 셋째는 70세 이후에서 입적하기까지 영일의 오어사나 인홍사(후에 인홍사라 사액)·용천사(뒷날 불일사)·운문사 및 인각사에 거주하여 입적한 시기(1264- 1289)이다. 일연의 사상을 형성하는 데에는 포산지역과 수선사 계통의 교학사상이 영향을 주었다. 탄생설화와 관련하여 신이함을 보이고 있는데, 어머니가 꿈에 해가 집으로 들어와 배를 비추어 3일 후 태기를 느꼈으며 태화 병인년 6월 신유일(1206년)에 일연이 탄생하였다. 날 때부터 준매하여 의표가 단정하고, 풍준한 몸매에 입은 방구이며, 걸음은 우행이고, 살핍은 호시와 같았다. 아홉 살 되던 해 집을 떠나 광주 무량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출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출가의 성격이라기보다 당시 사찰은 일반인들의 교육기관의 역할을 했고 그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스님이 수학하던 무량사는 지금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근처에는 가지산문의 종찰 보림사가 있다. 14세에 가지산문의 발원지 진전사(현재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에 위치해 있다. 조선중기 이전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은 절터만 전해오고 있다. 진전사에는 선문 개창자 도의가 주석했으며 염거, 보조 스님 등이 수학)의 대웅장로를 은사로 하여 득도한 다음 구족계를 받았다. 일연에게 계를 내린 대웅장로는 가지산문에 속한 스님이다. 득도 후에는 선방으로 다니면서 참선하여 명성이 점점 높아져서 당시 사람들이 추대하여 구산 중사선의 수장으로 삼았다. 정해년 겨울 22세 때 선과에 응시하여 상사과에 급제하였다. 그 후 보당암, 묘문암, 무주암 등에서 선을 공부하였

4) 일연의 부는 좌복사, 모는 낙남군부인에 봉해졌다는 것은 스님의 가계가 이 때는 한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32세 때 삼중대사의 승계를 재수 받으며 39세 때 선사를 가호받았다. 1259년에는 다시 대선사가 되었다.

1268년 왕명에 의해 운해사에서 대성낙성회를 주관하고, 1274년 비슬산 인홍사를 중수한 후 왕의 사액에 따라 인홍사로 개명했으며, 같은 해 비슬산 용천사를 불일사로 개명했다. 1277년(충렬왕 3)부터 충렬왕의 명에 따라 당시 가지산문에 소속된 중요한 사찰인 운문사에 머물렀다. 고려초기에는 독립된 운문선문으로 성립되었고 그 개산조는 보양이었다. 이곳에서 『삼국유사』의 집필에 착수했다.

원종이 서울에 머물기를 간청하여 서울에 온 지 4년 만에 다시 시골에 내려가 향학열에 가득한 승려들을 위해 불법을 가르쳤다. 충렬왕이 몽고의 속국이 되어 일본 원정을 가기 위해 부산근교에서 배를 건조하는 등 전쟁물자 준비를 하는 병사들을 격려하려 갈 때 충렬왕은 일연과 함께 가기도 했다. 그리고 평소 일연을 존경하여 국사로 모시려 하니 스님은 거듭거듭 사양했다. 충렬왕의 간곡한 청에 마지못해 1283년 국존으로 추대되고 원경충조의 호를 받았다. 1284년 경상북도 군위의 인각사를 중건하고 궁궐에서 구산문도회를 열었다.

국존⁵⁾이란 임금과 백성들의 스승이다. 그러나 일연은 스스로 변화한 세간사를 떠나 출가사문이며 교학에도 뛰어난 선사로 본 분사를 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기에 병든 늙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낙향을 왕께 청하니 충렬왕은 그의 간청을 받아들여 그가 머물 인각사를 중축 보수하여 그가 머물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세심한 배려를 해준다. 한 나라의 스승으로 추앙받던 78세의 노령의 스님이 노모에 바

5) 13세기 충렬왕으로부터 국존으로 추존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일연스님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일연에 대해서는 채상식 교수에 의해 연구된 「보각국사 일연에 대한 연구-가지산문의 등장과 관련하여-」(한국사연구 26, 1979), 「인각사 보각국존 일연비 음기에 대하여」(어문연구 8-1·2합본, 1980), 「일연의 사상적 경향」(한국문화연구1,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88), 「일연의 출현과 가지산문의 추이」(고려후기불교사연구, 일조각, 1991), 「일연-시대상황과 삶의 궤적」(한국문화와 역사인물 탐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경산시청, 2001) 등이 있다.

친 극진한 효성은 진정 아름다운 것이었고,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찬탄해 마지않았다. 스님이 목암⁶⁾으로 자처했던 것도 효성이 지극한 진존숙⁷⁾을 흠모했기 때문이다. 진존숙은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고향인 목주로 거처를 옮겨 밤을 지새우며 삼은 짚신으로 어머니를 모셨던 중국의 고승이다. 충렬왕 10년(1284)에 일연의 어머니가 96세로 별세하였는데 일연은 맞은편에 있는 어머니의 산소를 지켜볼 수 있는 곳에 자신의 부도를 설치하는 효성을 보인다.⁸⁾ 조정은 인각사로써 하산소로

-
- 6) 일연의 비문에는 ‘모목주진존숙지풍자호목암’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스님 생전에 진존숙에 특별한 애정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7) 목주는 지금 절강생 건덕현의 옛 이름, 진존숙의 출신지이며 하세한 고장이기도 하다. 진작 황벽의 수좌로 있으면서 동문제자 임제를 친아우처럼 돌보았다는 것이며 운문종의 개산조 문언이 복건성으로 설봉을 찾기가까지, 목주 개원사에서 진존숙의 휘하에 들어 그의 선풍을 익혔던 것으로 사승은 전하고 있다. 진존숙의 고향땅 목주엔 늙으신 어머니님이 계셨다. 개원사 주승으로 있으면서 깊은 밤이면 부지런히 왕골 짚신을 삼아서 양곡으로 바꾸어 어머니를 봉양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도 진존숙은 짚신 삼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새벽녘이면 한 묶음 짚신 꾸러미를 남몰래 지고 나가 큰길가 나뭇가지에 걸어두어 오고 가는 길손들에게 스스럼없이 신고 가게 했다. 『조당집』, 『경덕집』, 『계고록』등엔 준엄하기를 마치 가을 하늘 서릿발 같은 경구를 많이 담고 있지만, 오직 진포혜로 전할 뿐, 이름을 남기지 않고 있다. 민영규, 『일연과 진존숙』, 『선원』 7월호, 불기 2536, p.36.
- 8) 일연스님은 84세 때인 1289년(충렬왕 15) 7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평소처럼 제자들과 선문답을 하며 담소를 나누던 일연이 앓은채로 고요히 입적했다. 이때 못 사람들과 작별한 뒤 눈을 감고 氣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였다. 선원사에 있는 정공이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 목소리로 “부도탑을 세울 곳을 여쭙어 보지 못했으니 후회막급이요” 하고 말하니, 못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안타까워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일연 스님이 적정 상태에서 고요히 깨어나서 못 사람들을 둘러보고, “여기서 동남쪽으로 4~5리쯤 가면 수풀이 우거진 산록이 기복을 이루면서 오래된 무덤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이 정말 명당이니 거기에 부도를 안치토록 하라” 하시고는 다시 종전처럼 눈을 감았는데 흔들어 보았더니 이미 입적한 상태였다. (이종문, 『인각사』 (금향아리, 2010), pp58-212) 일연스님이 열반에 들기 전 한 승려가 물었다 “석존께서 학입에서 입멸하시고 화상께서 인각사에서 본계에 돌아가시니 서로 떨어진 것이 얼마인지 못하겠습니다. 일연이 주장자를 한 번 내리치며 말하였다. “서로 떨어진 것이 얼마인가?” 승려가 나아가

삼았다. 왕은 김용검을 보내어 인각사를 수리하게 하였다. 84세 되던 1289년 7월 18일 제자들로 하여금 복을 치게 하고 자신은 의자에 앉아서 여러 스님들과 더불어 여유 있게 선문답을 주고받다가 홀연히 손으로 금강인을 맺은 채 열반에 든다. 열반 당시 스님의 모습은 얼굴 모양은 생전과 같이 선백하고 지체는 윤택하며, 굴신 작용은 생시와 같이 유연하였다고 한다. 충렬왕 21년에 문인인 운문사 주지 청분이 엮은 행장을 참고하여 민지가 탐비를 찬술하였다. 스님은 사람 됨됨이가 말할 때에는 농담하는 일이 없고, 천성은 가식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항상 진정으로 사람을 대하고, 많은 대중과 같이 있으면서도, 마치 홀로 있는 것과 같이 조용하였으며. 국존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항상 자신을 낮추었으며, 배움에 있어서는 스승으로부터 수학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통달함을 보였다.

II. 일연의 『삼국유사』 저술의 의의

말하였다. “이와 같은진대 옛과 지금이 상응하여 실추됨이 없어 분명히 목전에 있습니다.” 일연이 다시 한 번 내리치며 말하였다. “분명히 목전에 있느니라.” 승려가 다시 나아가 말하였다. “삼각 기린이 바다 속에 들어가니 부질없이 남은 조각달이 물결 가운데서 나옵니다.” 일연이 말하였다. “다음 날 돌아와서 다시 그대들과 더불어 한바탕 흥겹게 놀아보세,” 정병삼, 『일연과 삼국유사』 (새누리, 1998), p.42. 乙酉晨起而坐謂衆曰今日吾當行矣不是重日耶云不是日然則可矣令僧過法鼓師至善法堂前踞禪床封印寶命掌選別監金成固重封畢謂曰適值天使來見老僧末後事有僧出問釋尊示滅於鶴林和尚歸眞於麟嶺未審相去多少少師拈杖卓一下云相去多少進云伊則今古應無墜分明在目前師又卓一下云分明在目前進云三角麒麟入海中空餘片月波心出師云他日歸來且與上人重弄一場又有僧問和尚百年後所須何物師云只這箇進云重與君王造箇無縫塔樣且何妨師云甚處去來進云也須問過師云知是般事便休又有僧問和尚在世如無世視身如無身何妨住世轉大法輪師云隨處作佛事問答罷師云諸禪德日報之痛痒底不痛痒底糊未辨乃拈杖卓一下云這箇是痛底又卓一下云這箇是不痛底又卓一下云這箇是痛底是不痛底試辨看便下座歸方丈又坐小禪床言笑自若俄頃手結金剛印泊然示滅有五色光起方丈後直如幢其端煜如炎火上有白雲如蓋指 일연의 비문은 번역자의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약간의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연은 12세기 이후 고려 선종계에 유행한 임제선의 영향에 의해 간화선에 심취했으나, 남해 정림사에 초청을 받아 머물게 되면서 이미 기존의 임제종 계통의 간화선을 적극 수용하여 정리한 단계에 있던 수선사의 선풍에 의해 더욱 세련된 간화선에 심취했다. 하지만 특정 신앙이나 종파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불교신앙을 표방하는 저술을 찬술했으며, 선·교를 막론하고 많은 불교 서적을 편수했다. 그의 저술의 특징은 선종 계통이 주를 이루며, 사전의 성격을 지닌 저작이 많다는 것이다. 또 1256년(고종 43)에는 정림사와 멀지않은 길상암에서 『중편조동오위』를 찬술하였다. 선종이 여러 산문으로 나뉜 자체가 미혹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본 일연은 자연 선종사상을 통합하려 했고 이 책은 그런 의도에서 편찬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책의 내용은 초기 성리학적 분위기와 서로 맥락이 닿게 서술되어 있다. 한편 『삼국유사』의 찬술을 위해 1278년에 이미 역대년표를 작성하고, 이후 그의 나이 73~76세에 운문사에서 『삼국유사』를 찬술했다. 그 외 저서로는 『어록』2권, 『계송잡저』3권, 『중편조동오위』2권, 『조과도』2권, 『조정사원』30권, 『선문송사원』30권, 『대장수지록』3권, 『제송법수』7권 등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의 저술이 없어져 버렸고, 비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삼국유사』만이 전해 올 따름이다. 비문에 등장하지 않는 『삼국유사』가 일연의 저작물이란 사실은 정덕본 권오 초두에 보이는 “국존조계종가지산하 인각사주지원경충조 대선사 일연찬”이란 기록이 그 유일한 증거로서, 이 기록이 바탕이 되어 인각사 주지였던 원경충조 일연이 『삼국유사』의 저자임이 확인된 것이다.⁹⁾

『삼국유사』의 간행 연대는 확실히 알 길이 없으나 대체로 충렬왕 8년 전후, 즉 서기 1281~1283년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삼국유사』의 고판본으로 종종 정덕본과 그 이전에 된 듯한 판각의 련본이 있고, 신

9) 소재영, 「삼국유사에 비친 일연의 설화의식」, 『삼국유사 연구 논문집』 (백산자료원, 1986), pp.219-220.

간본으로는 일본 동경대학본, 조선 사학본, 계명 구락부에서 간행한 육당 교감본과 또 육당의 증보본이 있다. 그 밖에 안순본 수택의 정덕본을 영인한 일본 경도대학본과 고전 간행본이 있다.¹⁰⁾ 그렇다면 고려 이전의 우리 고대 문화와 불교사서, 설화집성집, 불교신앙을 포함하는 역사에 관한 문헌, 잡록적 야서, 야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여타의 전적들보다 『삼국유사』가 갖는 각별한 의미는 무엇인가? 『삼국유사』에 기록된 민속신앙은 그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입하였을까? 『삼국유사』와 민속신앙과의 습합의 양상이 한국불교사와 관련이 있다면 그것은 왜 중요하며 어떻게 연구되어야 할 것인가? 주지하다시피 『삼국유사』는 저자가 서명을 통하여 밝히고 있듯이 사가의 기록에서 빠졌거나 자세히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내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남선은 찬자 일연이 “야인으로서 아무런 타의없이 고기의 유주를 원형대로 수철하여 박고와 아울러 전기의 자를 삼으려 한 것”¹¹⁾이라 밝히고 있다. 『삼국유사』는 정사의 체제와 다르며, 불교사서인 『해동고승전』과도 다르다. 이 책의 체제를 10과로 분류한 것은 양, 당, 송 삼국의 고승전과 약간의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책은 단순한 불교문화사라로 하기에는 일반사와 혼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삼국유사』는 바로 선승인 일연이 당시의 현실의식에서 출발하여 새로이 인식한 자국의 역사에 대한 선택적인 서사였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비로소 이 책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책의 내용에는 찬자인 일연 자신의 의식이 보다 크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¹²⁾

『삼국유사』의 간행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대체로 충렬왕 8년 전후(서기 1281-1283)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일연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시기는 70대 후반부터 84세로 입적하기 직전 주로 만년이다. 『삼국유사』는 권5권으로 되어 있고 그 구성은 왕력, 기이, 흥법, 탐상, 의해,

10) 일연, 이민수 옮김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1996), p.5.

11) 최남선, 「삼국유사해제」, 『증보삼국유사』 (서문문화사, 1990), p.9.

12) 장정태, 『한국불교와 민간신앙의 습합관계연구-삼국유사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1, pp.34-39.(참조)

신주, 감통, 피은, 효선 등 9편목으로 되어 있다. 5권 9편 144항목으로 구성된 『삼국유사』는 삼국의 역사 전반에 관한 사서로 편찬된 것은 아니다. 향가 14수가 수록되어 있어 균여전에 전하는 11수와 함께 국문학적 가치가 높다.

『삼국유사』를 그 이름만으로 본다면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에 관한 정사(正史)에 기록되지 않은 유사(遺事)를 기록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고조선, 위만조선, 마한, 낙랑국, 남북대방, 말갈발해, 이서국, 오가야, 동북부여, 고구려, 변한, 백제, 진한 등을 취급하고 있다. 특히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 백제의 왕실 등이 모두 단군과 그 아들 동명왕의 혈통에 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왕력 기이편 ‘가락’을 첨가하여 삼국(고구려, 백제, 신라)과 함께 우리 역사에 주요성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삼한을 고조선의 유민으로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일연의 역사의식을 검토하고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가락국기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역사인식과 사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Ⅲ. 가야건국과 멸망사

가야¹³⁾는 흔히 ‘신비의 왕국’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존재 자체는 알 수 있지만 가야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일연의 삼국유사에는 3편(5가야, 가락국기, 금관파사 석탑)과 김수로왕, 탈해 등 약간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 그나마 우리가 현재 접할 수 있는 기록이다.

13) 가야는 가라라고도 한다. 이 뜻은 촌락, 읍락의 뜻이다. 이 어원은 인디아의 지명에서 온 것이다. 인디아 지방의 원주민 드라비다 족의 지명에서 유래되었다. 그 후 아리안 족의 남하와 지배에서도 지명은 계승되었다. 인디아의 타밀어 도시명에 가야 가라라는 지명이 많다. 구시나가라 붓다가야 등은 일례에 속한다. 한말에 『history of Korea』의 명저를 남긴 hulbert는 한국 고대에 Dravida 지명어미의 상사사성을 말했다.(일연 저, 문경현 역주, 『삼국유사』, 민속원, 2015, p.127)

가야는 700년의 역사와 함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와 함께 한반도에 사국의 일원이다. 한반도에서 삼국시대는 대가야가 멸망한 562년부터 백제가 무너진 600년까지 불과 98년 밖에 안된다. 가야가 존속한 700년 기간동안 신라는 물론 백제보다 더 광활한 영토를 거느린 대제국이였다. 일본과 교류를 한 해양문화권으로 철기가 발달한 국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미흡한 이유는 가야¹⁴⁾가 멸망한 이후 대다수 지배세력은 일본으로 이주하였다.¹⁵⁾ 남은 세력은 신라 귀족사회에 편입된다. 신라사회에 편입된 대표적 가계로 김유신계를 꼽을 수 있다.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은 만노군의 태수였다. 만노군은 지금은 진천으로 신라 수도 경주와 떨어진 곳으로 백제와 접경지대다. 유신의 할아버지는 금관가야 시조 김수로왕의 10대 손이자 마지막 임금 구형왕의 셋째 아들이다.¹⁶⁾ 신라 진흥왕 15년(554) 현재의 충청북도 옥천군에 있는 관산성 전투에서 일본과 연합군으로 구성된 백제군을 대파시켰다. 무력은 백제의 장관급 고위관리인 좌평 4명을 비롯 장졸 2만 9천 6백여 명을 죽였고 백제 성왕을 사로잡은 전공을 세웠다. 이와 같은 전공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 무대에서 먼 백제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만노군에서 살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서현이(왕의 동생 등에게 주어

14) 금관가야는 532년 멸망한다. 595년 가야계 김유신은 충청북도 진천에서 출생, 562년 대가야 멸망)

15) 일본의 천송강림 신화에서 천손이 하늘로부터 구슈(九州)의 '구시후루다케 久土布多氣 즉 구지봉에 하강한다는 내용은 김해세력의 파급으로 볼 수 있다.(김해시청 홈페이지)

16) 김유신은 서울(지금의 경주 편집자 주) 사람이다. 12대 선조 수로왕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그는 후한 건무 18년 임인에 구봉에 올라 가락의 9촌을 바라보고 마침내 그 땅에 이르러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가야(伽倻)라 했는데 후에 금관국이라 고쳤다. 그 자손이 계승하여 9대 손 구해 혹은 구차후에 이르렀다. 구해는 유신에게 증조가 된다. 유신의 비문에도 현원의 후에 소호의 자손, 남가야(南加耶) 시조 수로왕은 신라와 성이 같다.(김부식 저, 이재호 역, 『삼국사기』 제4권 열전 제1, 『삼국사기』, 서울출판사, 2006, pp261-262)김부식의 기록에 의하면 김수로왕은 물론 김유신이 소호의 후예이고, 경주 김씨 역시 소호의 후예라고 밝히고 있다.

지는 자리인 갈문왕) 입종의 아들 숙흘종의 딸 만명과 길에서 만나 중매도 거치지 않고 결혼을 하였기 때문이다.¹⁷⁾ 는 추측을 하고 있다. 이들 부부가 별(星)과 무장을 한 동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임신하였다고 한다.

가야의 멸망사 역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을 뿐 정확한 멸망원인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김해시청 홈페이지에는 가야 멸망원인을 4가지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야 멸망원인으로 첫째 가야지역의 소국들은 농업 및 해운 입지조건이 서로 대등한 상태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탁월해지는 것을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4세기의 국제정세 변동을 거치면서 4세기 말 고구려의 군대가 낙동강 유역까지 쳐내려왔는데 이는 가야가 발전하는 맥을 한 동안 끊어놓았다. 셋째 가야는 주변의 백제나 신라에 비하여 기존의 맹주국이 주변 소국들을 일원적으로 영도해 나가는 중앙집권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늦어 대외관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넷째 가야의 힘은 철 생산 능력의 우월성이 있었으나 5세기 이후에는 왜국이 철광산 개발에 성공하고 백제가 왜와 직접통교하기 시작하면서 왜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이 약해졌다.¹⁸⁾

가야의 여러 작은 나라들은 저마다 자연발생적 조건들을 존중하면서 520여 년을 이웃으로 공존했다. 가야는 강자의 패권으로 전체를 통합하지 않았고 언어와 문화의 바탕을 공유하면서 각국의 개별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것이 가야가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이었고 멸망의 원인이다.¹⁹⁾

가야와 왜의 교류는 지리적인 이유로 일찍부터 있었지만 4세기 이후 백제가

17) 정만진, 『김유신과 함께 떠나는 삼국여행』, 역사진흥원, 출판년도는 없다.
 18) 김해시청 홈페이지.
 19) 『가야본성』, 『칼과 현』,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2019.12.3.-2020.3.1.) 설명문 참조

급부상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왜와의 교류를 주도하던 가락국은 366년 왜가 백제와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맺자 입지가 좁아졌다. 400년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남쪽을 정벌한 이후에는 급격하게 쇠약해졌다.²⁰⁾

가야멸망의 원인으로 통일된 집권세력 부제가 가장 큰 원인이다. 가야는 단일화되지 않았다. 이들 가야의 여러 세력들은 오랜 기간 이합집산하는 등 부침을 거듭하다가 결국 망했다. 여러 가야 세력 가운데 금관국, 안락국, 대가야의 3대 세력이 주축이 되었지만 각기 자신들을 중심으로 통합된 하나의 가야국을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멸망하였다.²¹⁾

하나로 통일된 국가를 일구지 못한 채 정치적 분립의 상태에서 신라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다. 가야의 멸망에는 독자성을 지닌 여러 정치세력이 분리된 상태로 일관하였으므로 결코 단일한 국가의 국명이 될 수 없다.²²⁾

IV. 허황후의 인도 아유타국 쌍어문 신화

허황후가 배를 타고 아유타국에서 건너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김수로왕을 만났을 때 그녀의 입에서 나온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증언이 현재로는 전부다. 아유타국과 연관된 불교왕으로 김수로를 묘사하는 자료문헌들은 6세기 후반에서 8세기 후반 사이에 김유신일가-수로왕의 후손으로 추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김유신의 시대에 그 영향력이 절정에 달한 이후로 이 일가의 운명

-
- 20) 『가야본성』, 『칼과 현』,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2019.12.3.-2020.3.1.) 설명문 참조
 21) 가야사정책연구위원회 엮음, 『가야, 잊혀진 이름 빛나는 유산』, 주보돈, 『가야인, 신라에서 빛나다』, 해안, 2004, pp.193-195.
 22) 주보돈, 『슬픈가야, 만들어진 가야』, 『역사비평』 2019, 가을, 역사문제연구소, pp.136-137.

은 점점 더 쇠퇴²³⁾해 갔다는 정치적 동기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 왕후와 함께 침전(寢殿)에 드니 왕후가 조용히 왕에게 말한다.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인데, 성(姓)은 허(許)이고 이름은 황옥(黃玉)이며 나이는 16세입니다. 본국에 있을 때 금년 5월에 부왕과 모후(母后)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젯밤 꿈에 함께 하늘의 상제(上帝)를 뵈었는데, 상제께서는, 가락국의 왕 수로(首露)를 하늘이 내려보내서 왕위에 오르게 하였으니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사람이다. 또 나라를 새로 다스리는 데 있어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니 경들은 공주를 보내서 그 배필을 삼게 하라 하시고, 말을 마치자 하늘로 올라가셨다. 꿈을 깬 뒤에도 상제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 너는 이 자리에서 곧 부모를 작별하고 그곳으로 떠나라'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배를 타고 멀리 증조(蒸棗)를 찾고, 하늘로 가서 반도(蟠桃)를 찾아 이제 모양을 가다듬고 감히 용안(龍顏)을 가까이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대답했다. "나는 나면서부터 성스러워서 공주가 멀리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어서 신하들의 왕비를 맞으라는 청을 따르지 않았소. 그런데 이제 현숙한 공주가 스스로 오셨으니 이 몸에는 매우 다행한 일이오." 왕은 드디어 그와 혼인해서 함께 두 밤을 지내고 또 하루 낮을 지냈다.²⁴⁾ 수로왕과 허황옥이 나눈 대화가 허황옥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첫 단서이다. 이 두 부부가 나눈 대화에 관해서는 다른 주장들이 있다. 그러나 허황옥이 실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국왕이 부부간의 대화를 외부에 공개했다면, 공개된 대화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윤색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거기에는 공개를 통해 모종의 효과를 얻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공개된 내용은 본래 발언에 어느 정도의 윤색되었으며 또 내용 공개는 둘의 혼인이 하늘의 점지에 의한 신성한 결합임을 강조하는 동

23) 박노자, 『삼국유사 그리고 신화적 상상력과 예술』, 『고대·중세 한국인의 인도관(觀)-가락국기(駕洛國記)를 중심으로』, (문화재청, 2012), p.109.

24) 『삼국유사』, 제2권, 기이 제2, 「가락국기」

시에 국왕이 은밀히 결혼을 준비한 사실을 감춤으로써 토착세력의 소외감을 달래기 위한 장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²⁵⁾

또 다른 주장으로 수로왕릉 묘역에 그려진 쌍어문양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납릉 정문의 쌍어문, 안향각의 쌍어문은 가야시대 이후 지금까지 지속된 건축물이 아니라 조선중기 건립된 것으로 그 문양이 가야시대로부터 전래된 문양으로 복원했다는 가설은 존재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가설에 불과한 소설적인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수로왕릉과 관련된 조선조 기록에 의하면 돌보는 이 조차 없이 방치된 채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총 14회에 걸쳐 김수로왕과 관련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세종조 기록에 의하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하 연대순으로 살펴보면,

세종21년(1439) 10월 기묘에 경상도관찰사 이선이 급하게 장계를 올려 말한 다. 경상도 관찰사 이선(李宣)이 치계(馳啓)하기를, "신이 순시차로 김해(金海)에 이르러 친히 살펴보은즉, 읍내성[邑城] 서편 길옆에 가락국(駕洛國) 시조(始祖) 수로왕(首露王)의 능침(陵寢)이 수전(水田) 가운데에 침몰되어 있었는데, 혹은 길을 내어 짓밟으며 혹은 마소를 방목(放牧)하기도 하오니, 다만 마음가짐이 소홀하고 행위가 무례한 것뿐이 아니옵고, 금제(禁制)하는 법률도 있사옵나이다. 신이 그옥이 생각하옵건대, 수로왕이 비록 해변 한구석에서 나라를 세웠고, 또 알 속에서 나왔다는 것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사오나, 나라 다스리기를 1백여 년이나 하였으며, 나라를 계승한 것도 거의 수백 년이나 되었으니, 신라나 백제의 시조에 비하오면 그 공이 비록 우열은 있사오나, 상고 시대에 있어서 농사를 힘쓰는 것으로 나라를 창립하여 백성들이 그 은덕으로 한편에서 편안히 살았사오니, 비읍건대, 신라 시조를 숭앙(崇仰)하던 예전(禮典)에 의하여 그 제도와 예절을 참작하여 능 옆 사방 50보 안에 있는 밭은 모두 묵히게 하여 갈고 심는 것을 금지하고, 소나무를 심어서 구역의 경계를 정하고 표석을 세우게 하옵시되, 수호하는 1, 2호(戶)를 선정하여 때때로 소제하게 하와 포장하는 예절을 배풀게 하옵소서."하매, 예조로 내려보내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수로왕 능침에 표석을 세우고 수호하는 사람을 두게 할 필요는 없으나, 단지 사면(四面)으로 각각 30보씩을

25) 김종성, 『철의제국 가야』, (역사의 아침, 2010), pp.146-147.

한정하여 밭갈고 나무하는 것을 금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²⁶⁾

세종 21년 10월 4일 기묘에 경상도 관찰사 이선(李宣)이 치계(馳啓)하기를, "신이 순시차로 김해(金海)에 이르러 친히 살펴보온즉, 읍내성[邑城] 서편 길 옆에 가락국(駕洛國) 시조(始祖) 수로왕(首露王)의 능침(陵寢)이 수전(水田) 가운데에 침몰되어 있었는데, 혹은 길을 내어 짓밟으며 혹은 마소를 방목(放牧) 하기도 하오니, 다만 마음가짐이 소홀하고 행위가 무례한 것뿐이 아니옵고, 금제(禁制)하는 법률도 있사옵나니. 신이 그옥이 생각하옵건대, 수로왕이 비록 해변 한구석에서 나라를 세웠고, 또 알 속에서 나왔다는 것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사오나, 나라 다스리기를 1백여 년이나 하였으며, 나라를 계승한 것도 거의 수백 년이나 되었으니, 신라나 백제의 시조에 비하오면 그 공이 비록 우열은 있사오나, 상고 시대에 있어서 농사를 힘쓰는 것으로 나라를 창립하여 백성들이 그 은덕으로 한편에서 편안히 살았사오니, 비옵건대, 신라 시조를 숭앙(崇仰)하던 예전(禮典)에 의하여 그 제도와 예절을 참작하여 능 옆 사방 50보 안에 있는 밭은 모두 묵히게 하여 갈고 심는 것을 금지하고, 소나무를 심어서 구역의 경계를 정하고 표석을 세우게 하옵시되, 수호하는 1, 2호(戶)를 선정하여 때때로 소제하게 하와 포장하는 예절을 베풀게 하옵소서." 하매, 예조로 내려보내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수로왕 능침에 표석을 세우고 수호하는 사람을 두게 할 필요는 없으나, 단지 사면(四面)으로 각각 30보씩을 한정하여 밭갈고 나무하는 것을 금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선조는 전대 임금의 능묘의 일을 의논하면서 수로왕 능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전대(前代) 임금들의 능묘(陵墓)는 변란을 겪은 뒤이므로 각각 그 고을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훼손된 곳을 수리하고 초목(樵牧)을 금해야 할 듯하다. 경상도 김해(金海)에 있는 가락국 시조 수로왕(首露王)의 능, 평안도 평양(平壤)에

26) 慶尙道觀察使李宣馳啓: "臣巡至金海, 親審邑城, 西面道傍駕洛始祖首露王陵寢, 湮沒水田, 或開道踐履, 或牛馬放牧, 非惟簡慢無禮, 而律有禁制。 臣竊意首露雖據海隅(卯)生, 異於常人, 享國百有餘年, 傳祚之久, 幾於數百, 比諸羅、濟始祖, 厥功雖有優劣, 當鴻荒之初, 務農創業, 民受其賜, 一方按堵。 乞依羅祖褒典, 量其制禮, 陵傍四面五十(少)內田, 竝使陳荒, 禁耕栽松, 爲之兆域, 命豎表石, 擇定守護一二戶, 以時(茜)掃, 敦示獎禮。" 下禮曹。 禮曹啓: "首露王陵寢, 不須立表石置守護, 但令四面各限三十步, 禁耕樵採。" 從之。《世宗實錄》卷86,

있는 기자(箕子)의 묘, 중화(中和)에 있는 동명왕(東明王)의 묘가 포함된다.²⁷⁾

청도 유학 김은이 상소하여 수로왕릉의 수호를 소홀히 하지 말 것등을 청하다 청도(淸道)의 유학(幼學) 김은(金涇) 등이 상소를 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 등의 시조(始祖)는 가락국(駕洛國)의 수로왕(首露王)인데, 임진년에 이르러 왜구(倭寇)가 무덤[塚]을 파헤치는 변고를 당하고..... 송인전(崇仁殿)104)·송덕전(崇德殿)의 규모와 같게 하도록 하여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청원한 것이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나, 송인전·송덕전·송의전(崇義殿)106)과는 차이가 있고, 또 신라의 본시조(本始祖)도 또한 이러한 예는 없었는데, 지금 어찌 신라에 딸린 작은 나라에 처음 개시(開始)할 수 있겠는가? 아! 천여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영역(瑩域)을 아직도 보존하고 있는 것은 향청(鄉廳)의 공 때문이다."²⁸⁾

수로 왕릉에 치제하고 축문을 다시 지어 바치게 하다. 수로 왕릉(首露王陵)에 치제(致祭)하였다. 하교하기를, "예전에 선조(先朝)에서 수토신(守土臣)에게 명하여 수로 왕릉의 사방 1백 보(步)에 돌을 세워 표하고 능영(陵塋)을 개축(改築)하게 하여 해마다 봄·가을에 부중(府中)의 부로(父老)를 모아 제사지내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삼았으니²⁹⁾

가락국(駕洛國) 시조 수로왕(首露王)의 능에 봄가을로 올리는 제사의 의식을 정하고, 전교하기를, 김해부의 노인들이 사당을 짓고 편액(扁額)을 '회로(會老)'라고 하였다. 내가 즉위함에 미처서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고 귀두(龜頭)019)를 다시 세웠는데, 근래에 감시와 보호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온 능에 썩대만 무성하여 분봉 앞을 지나는 자치고 손가락질하며 탄식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또 간악한 백성들이 그 땅에 농사를 짓는다고 빙자하여 잡식(蠶食)하고 있다.³⁰⁾

가락국 수로왕의 제삿날을 송덕전 등의 규례에 의거하여 정하게 하다

가락국(駕洛國) 수로왕(首露王) 능의 제사 날짜를 관상감으로 하여금 삼성사(三聖祠)·송령전(崇靈殿)·송덕전(崇德殿)의 규례에 의거하여 택일하라고 명하

27) 『선조실록』 166권, 선조 36년 9월 9일 임술 1번째기사 1603년 명 만력(萬曆) 31년

28) 『영조실록』 122권, 영조 50년 6월 1일 계미 2번째기사 1774년 청 건륭(乾隆) 39년

29) 『정조실록』 9권, 정조 4년 5월 8일 병술 1번째기사 1780년 청 건륭(乾隆) 45년

30)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3월 1일 경오 2번째기사 1792년 청 건륭(乾隆) 57년

었다.³¹⁾

예조가 각신 이만수의 별단을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각신 이만수의 별단(別單)의 여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락국의 왕릉이 김해부(金海府) 성 서쪽 2리쯤 되는 평야에 있는데, 설치한 물건은 혼유석(魂遊石) 1좌(坐), 향로석(香爐石) 1좌, 진생석(陳牲石) 1좌이고, 능 앞의 짙막한 비석에는 '수로왕릉(首露王陵)'이란 4글자를 써서 거북머리의 받침돌에 세워 놓았으니, 이는 바로 경자년에 특별 전교로 인하여 고쳐 세운 것입니다. 허황후의 짙막한 비석에는 '수로왕보주태후허씨능(首露王普州太后許氏陵)'이란 10글자를 썼습니다.

돌담 전면에 삼문(三門)을 설치하고 다른 각우(閣宇)는 없습니다. 제각(祭閣)은 4칸인데 정자각(丁字閣)의 제도를 사용하였고, 부엌 4칸, 제랑(齋廊) 4칸, 제실(齋室) 4칸으로 바로 옛 회로당(會老堂)입니다. 제각(祭閣)의 기둥 밖 서가래 끝에는 간간이 물이 새고 단청은 벗겨져 떨어진 곳이 많으며 부엌의 서가래는 태반이나 썩었으니, 허 왕후의 능에는 제각(祭閣)이 없으므로 전부터 제사지낼 때 수로왕릉의 제각에 합설(合設)하였었습니다. 허 왕후의 능에는 금지 구역을 침범한 곳이 한두 군데 있었는데, 여러 해가 된 것은 조사하여 규명하기가 어렵고 그중 작년에 새로 장사 지낸 것은 그대로 둘 수 없으므로 본부사(本府使)로 하여금 엄히 다스리고 기한을 정해 파서 옮기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수로왕의 무덤은 평지에 조성되어 그 주변에는 무덤이 들어서 있지 않지만 허황후의 무덤에는 일반인들의 무덤이 자리잡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관리가 되지않는다는 이야기다.

예조 판서 홍익이 아뢰기를, "수로왕릉(首露王陵)의 제사에 소찬(素饌)을 사용한다는 한 조항에 대해 전 예조 판서가 미처 복주(覆奏)하지 못하였는데, 신의 견해로는 능향(陵享)에 희생(犧牲)을 쓰지 않는 것은 바로 고려 때의 예이고 가락국(駕洛國)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도(神道)로 말하더라도 1천여 년 동안 해운 혈식(血食)을 이제 갑자기 소채만으로 지낸다면 미안할 듯합니다. 전대로 고기를 쓰되 다만 그 제식(祭式)이 혼란스럽기가 거의 총사(叢祠)와 같으니, 그 제품(祭品)을 바로잡기를 청합니다."하니, 따랐다.³²⁾

예조가 수로왕릉(首露王陵)을 향사하는 관례에 따라 시행하자고 아뢰었다.³³⁾

31)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3월 15일 갑신 5번째기사 1792년 청 건륭(乾隆) 57년
 32) 『정조실록』 35권, 정조 16년 8월 11일 정축 2번째기사 1792년 청 건륭(乾隆) 57년
 33)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6월 25일 기해 4번째기사 1796년 청 순치

수로왕(首露王)의 능을 비롯해서 신라 여러 왕의 능에다 잔을 올리고,³⁴⁾
 대호군(大護軍) 허전(許傳)이 상소에, '가락국(駕洛國) 수로왕(首露王)의 납
 릉(納陵)에 특별히 전호(殿號)를 내리고 아울러 승령전(崇靈殿), 승덕전(崇德
 殿), 승의전(崇義殿)의 규례대로 능관(陵官)을 둘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상소문의 내용을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라."하였다.³⁵⁾
 수로왕(首露王)의 전호(殿號)는³⁶⁾ 가락국 수로왕의 김해부 전각에 편액으로
 수망(首望)에 낙점(落點)하였다.³⁷⁾
 수로왕(首露王)의 사당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라." 하였다.³⁸⁾

“승선전지”에 따르면, 수로왕릉의 정문과 안향각 등을 세울 때 승려
 들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나는데,³⁹⁾ 이들이 쌓어문을 새겼을 가능성이

(順治) 1년

- 34) 『정조실록』 1권, 정조 대왕 행장(行狀)
 35) 『고종실록』 15권, 고종 15년 6월 20일 무술 3번째기사 1878년 조선 개
 국(開國) 487년
 36) 『고종실록』 15권, 고종 15년 6월 22일 경자 1번째기사 1878년 조선 개
 국(開國) 487년
 37) 『고종실록』 15권, 고종 15년 7월 20일 무진 1번째기사 1878년 조선 개국
 (開國) 487년
 38) 『순종실록』 3권, 순종 2년 1월 8일 양력 6번째기사 1909년 대한 융희
 (隆熙) 3년
 39) 정조 16년(1792)까지 그러한 건물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미
 쌓어문이 가야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을 가능성은 없는 셈이다. 쌓
 어문은 그 건물의 건립과 함께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 건물
 들은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그 해답은 정조 이후 왕명에 의하여 납릉에
 배치된 능감들의 기록을 정리한 <승선전지>에서 찾을 수 있다. 안향각의
 쌓어문은 순조 24년에 새겨진 것이고, 납릉 정문의 쌓어문은 정조17년
 (1793)의 신축 때나 또는 헌종 8년의 이런 때에 새겨진 것이라고 하겠다.
 다만 납릉정문의 쌓어문을 새긴 공포 밑의 창방에는 별다른 무늬를 새기지
 않고 청록색 단청을 단순하게 칠하였고, 안향각의 쌓어문을 새긴 공포 밑
 의 창방에는 붉은 색 격자와 초록색 사격자가 반복되는 기하학적인 문양을
 그렸는데, 창방에 것처럼 기하학적인 문양을 그린 건물로는 고종 18년
 (1881)에 창건한 신도비각 건물이 있다. 김태식, 『김해 수로왕릉과 허왕
 후릉의 보수과정 검토』, (한국사론41·42 1999), pp.77-82.

가장 높다. 쌍어문은 본래 불교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장으로, 왕릉 정문의 현판에는 그밖에도 불교와 밀접한 그림들이 다수 등장한다. 현판 좌우에 있는 네 개의 장식판에 그려진 남방식 불탑이 그렇고, 두 마리의 코끼리나 연꽃 봉우리가 그렇다. 더구나 쌍어문이 정말 아요디아국 문장이라면 오히려 수로왕릉이 아니라 허왕후릉 쪽에 그려져 있어야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⁴⁰⁾

이종기가 아요디아를 방문하여 찾아냈다는 쌍어문은 18세기 이후 현 아요디아 시 지역의 토후였던 짜끄라와르띠 마하라자 다슈라트 Chakravarti Maharaja Dashrarh라는 봉건 지주의 성문 위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 18세기의 건축물에 새겨진 문양이 고대 1세기 아요디아국의 상징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고대 인도에는 아요디아 지역은 물론이고 어느 곳에서도 이종기가 주장하는 식의 국가 문장이라는 것이 없었다. 더군다나 아요디아는 1세기 당시 하나의 국가를 이루지도 않았다. 그곳은 갠지스 강 중류 유역에서 발달한 여러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당시에는 ‘아요디아’라는 이름도 쓰이지 않았다. ‘아요디아’라는 이름은 《라마야나》 신화에서만 나왔을 뿐 역사에서는 그런 이름을 쓰는 도시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요디아’라는 도시는 힌두신화의 수도일 뿐 지금의 아요디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의 아요디아는 5세기 중반 이후부터 7세기 초의 한 시기에, 이전에 번성했던 도시 사께따에 처음으로 ‘아요디아’라는 이름을 붙여 생긴 도시다.⁴¹⁾

결국 허왕후의 아유타국 출신이란 주장은 오빠 장육화상의 불교전래 설화와 함께 불교의 권위를 빌어 신성화 관념을 모색하다. 전승되고 기록되는 과정에서 변화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임에 틀림없다.⁴²⁾ 아유타가 인도라는 의식의 저변에는

40) 이희근, 『가락국의 허왕후는 인도 아닌 ‘한반도 倭’출신』, (월간중앙 6월호, 2000), p.308.
 41) 이광수, 『인도에서 온 허왕후, 그 만들어진 신화』, 도서출판 푸른역사, 2017, pp.148-153.
 42) 남재우, 『가락국의 건국신화와 제의』, (부산경남사학회 제67집, 2008),

가락국기에 등장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로써가 아닌 본질적으로 왜곡된 ‘인도’와 동일시되는 의미로 알려졌다. 그것은 신라 중대와 고려 초기 사이에 불경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불경 속에 군데군데 들어 있는 ‘아유타’를 ‘인도’와 동일시하면서 특정 사찰에서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은 결국 통일 신라 이후 형성된 불국토 관념 아래에서 한국이 인도와 인연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땅은 과거칠불은 물론 붓다가 머물고 있었고 지금도 머물고 있다는 의식이 내재 있었다. 불영사 서북쪽에 반석이 있어 항상 물이 고여 있는데 이는 부처가 가사를 빨았던 곳이다.⁴³⁾ <옥룡집> 및 <자장전>과 <제가>전기에 모두 말하기를, “신라 월성 동쪽에 용궁 남쪽에 가섭불연좌석이 있는데, 그 자리는 전불 때의 가람터이며 지금의 청룡사 땅은 곧 일곱 가람의 하나이다.”라고 하였다.⁴⁴⁾

효소왕이 즉위 후 망덕사 낙성사에서 만나 승려에게 말하기를 ‘이곳에서 나가 국왕이 친히 공양하는 재에 참석하였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니, 승려가 웃으며 답하기를, “폐하께서는 또한 남에게 진신석가를 공양하였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⁴⁵⁾

‘아유타’가 허황후의 고향으로 설정된 것은 바로 이러한 불교적 역사 인식 아래 이루어진 ‘역사 만들기’의 일환인 것이다.⁴⁶⁾ 6세기 후반-7세기 초반의 신라-수 제국과 다름없이-에서도 국가 통치자가 세계를 통합할 아주 도덕적이고 독실한 인물인 전륜성왕으로서 비전을 갖는 것

p.45.

43) 『삼국유사』, 제3권 탑상 제4 「어산불영」 조

44) 『삼국유사』, 제3권 탑상 제4 「가섭불연좌석」

45) 『삼국유사』, 제5권 감통 제7 「공양을 받는 진신」 조

46) 이광수, 「가락국 허황후 도래 설화의 재검토:부산·경남 지역 불교 사찰 설화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31, 한국고대사학 편, 서경문화사, 2003, pp.203-204.

이 유행이었다. 같은 시기에 인도는 신라와 신라가 정복했거나 정복하고자 하는 초기 한반도의 다른 모든 영토들과 숙업적으로 연결되는 불교세계의 중심지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믿음은 신라의 지배 귀족세계에 편입된 금관(김해)왕족의 후손들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이들은 전륜성왕 아소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자 하는 신라 왕조의 입장에 대응하여 ‘아유타국 공주’와 결혼하고 악령들에게 불교를 설파하고 보드가야와 나가라하라의 이름을 따라 지은 가치가 있는 영토를 지배하는 그들이 선조로 추앙하는 수로왕의 설화를 통해 필적하고자 했다.⁴⁷⁾

평범하게 시작된 허황옥 설화가 불교 융성기에 인도의 아유타국 설화로 윤색되었다. 가락국 건국시기에 해양과 육로를 통해 인도와 김해 가락국 사이에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허황옥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와서 가락국 건국에 참여했고 수로와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전승되어 오다 통일기 이후 불교가 융성해 지면서 허황옥이 인도의 아유타국, 아니면 인도로부터 왔다고 윤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⁴⁸⁾

1) 아유타국과 관련 다양한 주장

아유타국을 인도로 보는 학설도 다양하다. ①허황후가 실제 기원전 3세기경 갠지즈강 중류지대에서 크게 번성하였던 불교왕조인 ‘아요디아’에서 왔다는 설, ②인도 아요디아에서 중국 사찬성 보주(普州) 일대로 옮겨와 살던 브라만 집단의 일부가 양자강을 타고 동진하여 황해를 거쳐 가락국으로 이주 설⁴⁹⁾ ③1350년 경 시암(siam)왕국의 두 번째 수

47) 박노자, 『삼국유사 그리고 신화적 상상력과 예술』, 『고대·중세 한국인의 인도관(觀)-가락국기(駕洛國記)를 중심으로』, (문화재청, 2012), p.109.

48) 남재우, 『가락국의 건국신화와 제의』, (부산경남사학회 제67집, 2008), p.48.

49) 보주 주장의 근거는 1647년(인조25년)에 세워진 비석에 ‘보주’라는 단어

도 주장이다. 아유타야는 타이의 수도 방콕 북쪽에 있으며 ‘불멸(사라지지 않는다)이란 뜻의 오래된 도시다. 아유타가 태국에 실제하였던 지명설이다. 이 왕조를 불교를 숭배했던 우롱 왕가가 건국한 왕국으로 400여 년 동안 유지되었다. 1767년 버마인들에 의해 지배되면서 파괴되어 200여 년 동안 잊혀져 있던 도시다.

허황후가 189년에 실제로 돌아갔다고 인정하더라도, ‘보주태후’는 그로부터 130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사용되었기 때문에 용례는 처음 사용되었던 당시의 인식에 따르는 것이 더 합당하다.

불교에서는 붓다를 보지자(普知者)라 하고, 불법을 보법(普法)이라고 하며, 붓다를 숭배하는 것을 보례(普禮)라고 한다. 따라서 ‘보주’는 ‘불교의 땅’⁵⁰⁾을 말하는 것은 중국의 특정 지명으로 보주가 아니라 ‘불교의 땅’(아유타야)에서 온 왕후란 의미다. 이것도 인도라고 전제했을 때 성립된다. 허황후는 인도의 아요디아 왕조가 기원 1세기 이전에 지금의 태일 방콕에 건설한 식민국이었던 아유타야에서 왔다는 설 등이다.⁵¹⁾ 이와 별도로 왜국출신이란 주장에 제기되고 있다. 허황후의 출

와 유사한 지명으로 중국 지역에서 찾아내면서 허황후의 고향이 인도 아유타 지역에서 출발하여 중국 사천성의 보주에 정착한 아유타인의 후예라는 주장이다. 1987년 고고학자인 김병모씨가 주장한 중국 보주출신 보주는 현 사천성 안악현을 가리킨다. 인제대 이영식 교수의 평안도나 황해도에서 김해로 온 이주인, 홍익대 김태식 허황후릉의 ‘보주태후’라는 명칭은 중국의 사천성을 지칭하기보다, 조선 전기 김해지역에 거주하던 지방 사족들이 자신들의 시조를 예우하기 위해 붙인 미칭(美稱) 이희근 당시 한반도 서남해의 해양세력인 왜 지배층 출신, 소설가 강평원 중국 내륙지방인 서장성의 아유타국 아리(阿里)지방(박창희, 『살아있는 가야사 이야기』, 도서출판 이른아침, 2005, pp132-137)

50) 이광수, 『인도에서 온 허황후, 그 만들어진 신화』, 도서출판 푸른역사, 2017, pp.83-84.

51) 조원영, 『가락국의 수로왕과 허황후』, (시민시대 통권 256호, 2006), pp.81-82. 일본에 있던 가락국의 분국이었던 아유타국설, 기원전 1세기 인도에 있었던 아요디아 왕국이 건설한 식민국인 타이의 아유타 설, 아요디아에서 중국 사천성 푸주 지역으로 집단 이주해 살던 허씨족이 이주해 온 것이라는 설 등이 있다. 백승충, 『김해지역의 가야관련 전승자료-허황

신지는 기존의 가설처럼 인도가 아니라 왜국 출신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왕후사를 세우자 왜가 복속했다는 본기의 기록은 그의 출신지가 왜국이었다고 가정할 때만 이해될 수 있다. 허왕후가 왜 출신이 아니었다면 그를 위해 왕후사를 창건했다고 해서 왜가 복속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왕후사 건립⁵²⁾은 단순히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대변되는 가야지역의 왜 집단을 무마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봐야 할 것이다. 허왕후의 왜 입국설의 또 다른 증거로 신라 진흥왕23년(562) 대가야가 신라에 의해 멸망 전후하여 가야 일부 귀족집단들이 흔적없이 사라진다. 일부는 침략국 신라에 의해 도륙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부는 일본 입국설이다. 이들이 일본으로 갈 수 있었던 것으로 김수록왕이 구지봉에서 탄생할 때 붉은 보자기에 싸인 상자에 나왔다고 하듯 일본의 황손 역시 신성한 이불에 싸여 땅으로 내려왔다는 주장과 일본 천황가의 조상의 하늘나라는 가락국이었다. 『일본서기』에는 공국(空國)이라 했고 <고사기>에서는 한국(韓國)이라 했지만 공국이나 한국이나 모두 가락국으로 읽는다. 그러나 일본천황가의 출발지는 가락국⁵³⁾

태후의 성은 허씨다. 족보에는 아유타국 군주의 따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금관가야의 고사에 따르면 남천축국(南天竺國)군주의 따님이라고도 하고 혹은 스스로 서역(西域)의 허국(許國)군주의 따님이라고도 말했다고도 하고 혹은 허황지국(許黃之國)이라고도 하니 이는 먼 곳의 외국(別國)이다.⁵⁴⁾

이와 같이 정제되지 않은 다양한 주장은 조선시대 유학자 허목이 자

후 설화를 중심으로-』, 향토사연구 제15집,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2003. pp.84-85.

52) 제8대 질지왕 2년 임진(45)에 이르러 그곳에 절을 세우고 왕후사(王后寺)를 세워 ‘이것은 아도와 눌지왕의 시대에 해당된다. 법흥왕 이전의 일이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복을 빌고 있다. 또 곁해서 「금관성의 과사석탑」 남쪽 왜국(倭國)을 진압시켰으니 『삼국유사』 제3권 탐상 제4)

53) 최중철, 『금관 가야왕국』, 미래문화사, 2006, pp.152-157.

54) 인조 24년(1646) 허목이 쓴 ‘보주태후릉비음기(普州太后陵碑陰記)’

신의 문집에 모두를 소개하고 있다.

수로왕이 그를 왕후로 삼고 호를 보주태후(普州太后)라 하였다. 태후(太后)의 성(姓)은 허씨(許氏)인데, 보첩(譜牒)에는 아유타국(阿踰陀國 인도(印度)를 가리킨다) 임금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금관고사(金官古事)에 어떤 사람은, ‘남천축국(南天竺國) 임금의 딸이다.’ 하고, 또 ‘스스로 말하기를 서역(西域) 허국(許國) 임금의 딸이라 하였다.’한다. 허(許)를 어떤 이는 ‘허(許)·황(黃)의 나라는 방외(方外 이역(異域)을 가리킨 말)의 동떨어진 나라로, 한 나라를 두고서 호칭(互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마 중국은 은(殷) 나라는 상(商)이요, 양(梁) 나라는 위(魏)인 것과 같은 것인가보다. 먼 옛날의 일이라서 후세에 전해지는 말들이 똑같지가 않다. 지(誌)의 기록에, ‘그 선군(先君)이 명(命)하기를, 「동쪽 나라에 틀림없이 가락원군(駕洛元君)이 있어서 너를 얻어 짝을 삼을 것 이라 하여 바다를 건너 왔다.」 하매, 수로왕이 그를 왕후로 삼고 호를 보주태후(普州太后)라 하였다’고 되었는데, 혹은 ‘황옥부인(皇玉夫人)’이라고도 한다. 이때는 동한(東漢)의 광무황제(光武皇帝) 건무(建武) 24년(48) 수로왕 7년에 해당된다.

그 후로 후한 영제(後漢靈帝)의 중평(中平) 영제의 연호) 6년(189) 3월에 태후가 흥(薨)하니, 수(壽)가 1백 57세였다. 태후는 10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태후의 성을 받은 자가 두 사람으로 후세에 각각 그 봉(封) 받은 땅을 가지고 따로 씨족을 만들어, 공암(孔巖)과 하양(河陽)의 허씨(許氏)가 되었고, 또 그 나머지 사람들도 각각 그 고향으로 성을 나타낸 자들이 많으나 그 시초는 다 태후에 근본하였다.

태후의 무덤은 왕릉(王陵)의 뒤 1리 밖에 있다. 옛 풍속에 나라 사람들이 동짓날로 선왕(先王)께 대사(大祀)를 올리되 태후로 배식(配食 배향(配享)과 같다)하여 지금까지도 제사를 올린다. 우리 소경대왕(昭敬大王 중국에서 내린 선조의 시호) 25년(1592)에 왜적의 침략이 있을때 왜적이 수로왕의 무덤을 파헤쳤는데 아울러 태후의 무덤까지 파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다시 왕묘와 태후묘의 봉분을 쌓았다. 상(上 인조(仁祖

를 가리킨다.) 24년(1646)에 영남 관찰사(嶺南觀察使) 허적(許積)이 크게 묘(墓)를 수리하고 이어 비석을 세워 그 사실을 기록하였다. 부모(父老)들이 전하기를, “만력(萬曆) 8년에, 관찰사(觀察使)였던 허공 엽(許公曄)이 일찌기 두 능을 수리한 일이 있었다.” 하는데, 지금까지 추계(追計)하면 67년 만에 수리한 셈이 된다.⁵⁵⁾

불교 사찰에서부터 시작된 허왕후 신화는 양천 허씨가 신화 속의 허왕후를 실제 인물로 여겨 허왕후릉을 비정하고 족보와 연계 시키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허왕후가 실재하는 역사 속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허왕후는 ‘보주 태후’라는 시호를 받게 되고, 적당한 타협을 통해 족보에까지 등장한다.⁵⁶⁾

허왕후 신화는 18세기 들어 김해의 명월사를 비롯한 작은 사찰들이 사원 비즈니스 차원에서 신화 만들기에 적극 나서면서 또 한 번의 큰 확장을 경험한다. 이 경우 이전 시대보다 더 과감한 방법으로 사료 조작과 날조가 이루어졌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허왕후의 형제 장유화상이라는 인물의 창조다. 그와 허왕후 아들들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1980년대 이후 일부 사이버 역사학자들에 의해 마치 「가락국기」나 『삼국유사』에 나오는 원형의 이야기처럼 퍼져 나갔다.⁵⁷⁾

55) 허목, 『미수기언』 II(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1979), pp.113-114.
 56) 이광수, 「허왕후 신화만들기-민족주의, 국민 콤플렉스 그리고 사이버 역사학」, 『가야인의 불교와 사상』, 제23회 가야사 국제학술회의,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17년 4월 7-8일, p.12.
 57) 이광수, 「허왕후 신화만들기-민족주의, 국민 콤플렉스 그리고 사이버 역사학」, 『가야인의 불교와 사상』, 제23회 가야사 국제학술회의,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17년 4월 7-8일, p.12. 『삼국유사』 제2권 「가락국기」에 자세히 소개되었다. 인도에서 허왕후와 함께 온 장유선사가 김해에 가기 전 남해에 제일 먼저 도착했다고 전한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장유선사 이야기는 지리산 반야봉에 위치한 칠불사 설화에 나온다. (박정원, 『신이 된 인간들』, 민속원, 2018, p.292) 남해 금산 보리암 중수기 내용을 소개하면서 박정원이 보았다는 『삼국유사』 「가락국기」 조에는 허왕후와 함께 왔다는 장유화상이 없다. 왕후가 함께 온 사람으로 잉신 2명의 이름은 신보와 조광 그들의 처 두 사람은 모정과 모량, 비복까지 합치면 모두 20여 명이다. 박정원의 기록 외 다른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장유화상과과

허황후 설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여러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문화, 불교문화, 풍수, 무속적 요소가 습합되면서 독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연의 「가락국기」에 기록되기 전 원형의 모습을 추론할 수 없게 다양한 문화와 만나 변형을 거듭한 끝에 일연에 의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글로 정착된 것이다. 변화를 거듭한 이면에는 전제한 것과 같이 문화적인 요인과 함께 근본적인 덧씌우기는 김유신, 문무왕으로 대표되는 가야계 인물들의 조상숭배 사상이 일정 영역으로 삽입된 것이다.

2) 불교정착기에 삽입된 아유디아 신화

허황옥의 출자 부분은 불교적으로 많이 미화되어져 있다. 허황옥이 인도에서 왔다는 것도 불교적 윤색으로 믿을 수가 없다. ‘일성삼 자삼 성칠’의 기술과 ‘칠성주지’의 기술은 불교식표현과 풍수사상이 혼재해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 말이나 고려 때의 기록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⁵⁸⁾ 평범했던 가락국 허황후 설화가 신비의 왕국으로 여겨지게 된 배경에는 가락국 수로왕릉 정문 현판 좌우에서 발견되는 쌍어문이 인도 아유디아국 전승의 신화가 그려져 있다는 이종기, 『가락국 탐사』(일조각 1977)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신화가 현실이 되었으며 이후 허황후능비의 ‘보주태후’라는 문구를 통해 인도, 중국 등에서 동일 지명을 찾던 김병모는 「허황옥은 사천성」을 거쳐 김해로 들어왔다.는 주장이다.⁵⁹⁾ 이와같은 허황후 실체에 대한 접근은 사주성(四州省) 안악현(安

김수로왕과 사이에 태어난 9명의 자손 이야기 역시 『삼국유사』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2차 연구자들은 가끔 이와 같은 연구 오류를 내놓고 있다.

58) 김영화, 『가야불교의 수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남대학교 사학과, 경대시론 10, 1997), pp.10-42.

59) 허황후의 인도에서 왔다는 주장은 아동문학가 이종기의 탐사문 형식을 빌린 수필에서 시작되었다. 이씨의 주장을 김병모가 20세기에 들어와 만들어진 이야기가 「가락국기」 기술 당시의 원형처럼 말했고, 그것으로 수로왕 시대의 역사를 논했다. 현재와 같은 인도와 아유타국설은 사실에 근거하

岳縣)의 옛 이름이며 후한 광무제(光武帝) 건무 23년(서기47년) 남군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토착민들이 봉기하여 한나라 정부에 대항하였다. 반란군의 세력이 강하여 정부는 진압군을 파견해 힘겹게 진압하였다. 반란군을 일으킨 토착인구 7000명을 강하(강하 현 武昌지방)로 이주시켰다. 서기 47년이면 허황옥의 가락국 도착 사건보다 꼭 1년 전 이다. 이후 2차 반란이 일어났고 그 중심에 허성이 있다. 정부군에 패한 이들은 강하로 이주되었으며 당시 15세 소녀가 양자강을 타고 황해로 나와 가락국에 도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통해 인도의 어느 지역이 아니라 중국이며 허라는 성은 세습되는 직업신앙인(巫師)이다.⁶⁰⁾ 김병모와 함께 중국 소수민족 출신이란 주장으로 그녀가 가져온 물품에서 찾고 있다. 공주와 그 결혼 후견인 잉신들의 이름이 허황옥, 신보(申輔)·조광(趙匡)등으로 인도계가 아니라 중국계여서. 그들이 인도에서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허황후가 배에 금은·비단·의복·그릇 등의 물건을 많이 싣고 왔다고 했는데. 이를 뒤에 다시 “중국 점포의 여러 가지 물건

기 보다는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반 연구업적이라는 논지다. 불교의 해양유입 역사설 역시 아동문학가의 역사 수필이 외과의사 허명철을 만나 가공된 후 김병모를 만나 학문으로 포장되고 언론을 만나 유포되었다. 사이비 역사학과 황색 언론이 만나 현재와 같은 신화가 역사가 되었다.(이광수, 『허황후 신화만들기-민족주의,국 민 콤플렉스 그리고 사이비 역사학』, 『가야인의 불교와 사상』, 제23회 가야사 국제학술회의,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2017년 4월 7-8일,pp.12-13)이와같은 조짐은 단군신화를 사화라는 주장이 군소언론을 통해 서서히 고개를 드는 현상과 유사하다. 남북한 정통성 경쟁에서 패한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수호를 위해 단군을 역사속으로 편입시킨다. 편입된 단군과 김일성체제와 동일시하는 역사시도는 단군신화를 단군사화를 해석하게 된다. 단군사회의 역사 주장은 중국의 주변국 역사를 말살하는 동북공정 정책에 동조하는 친중사학으로 변질되고 있다. 주변국 역사를 인정은 하데 그 역사는 역사를 편입하는 역사 침략사관이다. 삼국유사에서 주장하듯 당나라 요가 즉위한 지 50년 경인년(요가 즉위한 원년은 무진년이다. 50년은 정사년이지 경인년은 아니다. 아마도 사실이 아닐 것이다.)(삼국유사, 제1 기이1 고조선조)자주적 단군 국조신화는 위대한 민족건국설화다.

60) 김병모, 『허황옥은 사주성』 을 거쳐 김해로 들어왔다, (월간조선, 2004년 4월호), pp.337-339.

(潢肆雜物)이라고도 표현했으며, 짐을 싣고 왔던 선원15인에게 각기 쌀과 포목 등을 주어 돌려보냈다고 하였다. 정상적인 혼인 설화라면, 상호간에 오고간 물건의 처리에 이토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을듯 하다. 그렇다면 이는 해상 교통로를 이용하여 가야 지역에 와서 중국 계 통문물을 교역하던 낙랑상선의 도래와 염문이 모태가 되어 윤색된 것이 아닐까?⁶¹⁾

인적 물적 교류가 없던 인도의 공주의 방문을 미리 예견한 왕비를 만나 첫 대화가 "나는 나면서부터 성스러워서 공주가 멀리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어서 신하들의 왕비를 맞으라는 청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왕이 결혼을 미룬 이유와 오는 날에 임박해 도착할 장소 알고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날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아니라 같은 지역 출신으로 모두 도래인으로 볼 수 있다.

아유타국이 인도, 태국 등 먼 외방이 아니라 동일언어권이다. 그것은 이들이 만났을 때 언어적 장벽이 없다는 이유를 들 수 있다. 또 허황후가 올 것을 알았다는 것은 우연적 결혼이 아니라 오랜 기간 준비된 정략혼의 성격이 강하다.

여기에 또 하나 첨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허황옥’이 스스로 도래했다고 밝힌 ‘아유타국(阿踰陀國)’은 과연 어디인가의 문제다. <가락국기>를 살펴보면 허황옥은 처음 가락국 해안에 도착했을 때 맞으러 나온 유천간 등과 대화했고, 수로왕과의 첫날밤에 그와 독대하여 장황하게 자기소개를 했던 것으로 보아 아유타국은 가락국과 동일 언어권에 있었던 나라다.

그리고 허황옥의 부모가 딸 허황옥의 배필로 수로왕을 미리 접지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수로왕의 명성을 전해들은 지역적 근린성을 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수로왕의 경우 허황옥이 올 것을 미리 보고 유천간 귀신간 등을 파견하여 기다리게 했던 것은, 수로왕과 허황옥의 혼사가

61) 김태식,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1권)-수로왕에서 월광태자까지』,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2, pp.101-102.

미리 심부름꾼들이 오간 예정된 혼사였음을 아울러 말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유타국은 석탈해의 경우 ‘용성국(완하국)과 비슷한 근린 국가의 한 탁칭일 수 있다.⁶²⁾

정상균은 김수로, 허황옥, 유천간 등이 자유롭게 대화가 이루어진 것을 통해 동일문화권으로 보고 있다. 정상균의 동일언어권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유타국, 중국 사천성 보주, 왜국 등 이들 3인 역시 동일국가 출신이어야 한다. 김수로 탄생과 가락국기 건국신화를 살펴보면 개별화 후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정착하는 모습이다. 그들은 선진문화를 수업하여 나라의 호칭이 없었고 군신의 칭호도 역시 없었는데, 후한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임원 3월 계육일에 살고 있는 북쪽 구지봉(이는 산봉우리)에서 수로를 만나 나라를 통치하는 군왕을 옹립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황천의 명을 받고 다스리기 위해 내려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수로의 고향과 관련 특정지역이 등장하거나 암시가 없다.

V. 결론

김수로왕이 허왕후와 함께 온 시종들과 불편 없는 언어 소통은 결국 김수로, 허왕후는 동일지역, 동일언어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기본 의 인도, 태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도래설은 근거가 미약한 가설에 짐작일 뿐이다. 아유타 지명은 삼국유사 편찬시기와 저자 일연과 관련이 깊다. 허왕후가 가야에 도착하면서 김수로왕에게 밝힌 아유타국 공주라는 신분은 조선 중기 정조16년(1792) 김수로왕릉 주변에 들어서는 건축물에 처음 등장하는 쌍어문 문양이 조각되면서 설화적 요소가 역사 기록물로 정착되었다. 가야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지된 건축물이 아닌 200-300년 전 조선의 건축물을 1천년 이상 이어온 것이란 관대한 학문

62) 정상균, <가락국기>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농어문연구, 제9집), 1997, p.30.

풍토가 결국 설화적 요소가 배제된 채 역사 속으로 편입되었다. 더 나아가 조선 인조25년 ‘가락국 수로왕비(駕洛國 首露王妃) 보주 태후 허씨능(普州 太后 許氏陵)’비명은 중국에 등장하는 유사지명에 거주하는 허씨 일족으로 확대 해석되었다. 최근에는 특정 문종을 배경으로 하는 정치집단에 의해 가문 우월신화로 변질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치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부 연구자들의 이탈된 연구태도가 권력에 의해 정착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쌍어문, 허왕후 비문에서 발견되는 문양, 글귀가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영속성 유무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조선시대 한양 도성 축성에 승려들이 동원되었듯이 궁궐단청 역시 승려들이 참여하게 된다. 그들의 손에 의해 재현된 김수로왕의 쌍어문은 승려들이 사찰에 사용하는 문양을 그대로 모사한 것으로 쌍어문만으로 인도 연계설은 소설적 상상력을 역사기록으로 전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 .
- 김기정, 『가락국기』의 제의신화 연구, 상주농업고등전문학교, 1972.
- 김병모, 「허황옥은 사주성」을 거쳐 김해로 들어왔다, 월간조선, 2004년 4월호.
- 김부식, 『삼국사기』, 이재호 역, 서울출판사, 2006.
- 김영화, 『가야불교의 受容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남대학교 사학과, 경대시론 10, 1997.
- 김용덕, 『우리불교 우리문화』, 밀알, 2005.
- 김종성, 『철의제국 가야』, 역사의 아침, 2010.
- 김태곤, 「민간의 귀신」, 『한국사상의 원천』, 박영사, 1977.
- 김태식, 『김해 수로왕릉과 허왕후릉의 보수과정 검토』, 한국사론41·42 1999.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1권)-수로왕에서 월광태자까지』,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2.
- 김해시청 홈페이지.
- 남재우, 「가락국의 건국신화와 제의」, 부산경남사학회 제67집, 2008.
- 문병대, 「조선 전반기 조각사론」, 『한국의 불상조각4-삼매와 평담미』, 예경, 2003.
- 민영규, 「일연과 진존숙」, 『선원』 7월호, 불기 2536.
- 박노자, 『삼국유사 그리고 신화적 상상력과 예술』, 「고대·중세 한국인의 인도관(觀)-가락국기(駕洛國記)를 중심으로」, 문화재청, 2012.
- 박정원, 『신이 된 인간들』, 민속원, 2018.
- 박창희, 『살아있는 가야사 이야기』, 도서출판 이른아침, 2005.
- 백승충, 『김해지역의 가야 관련 전승자료-허왕후 설화를 중심으로-』, 향토사연구 제15집,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2003.
- 백창기, 「가락국 초기 왕비족의 연구-허황옥 집단의 성격과 관련하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1.
- 소재영, 「삼국유사에 비친 일연의 설화의식」, 『삼국유사 연구 논선집』,

- 백산자료원, 1986.
- 유종근 외, 『한국풍수의 원리』, 동학사, 1997.
- 이광수, 「고대 인도-한국 문화 접촉에 관한 연구-가락국 허왕후설화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10, 비교민속학회, 1993. 「가락국 허왕후 도래 설화의 재검토:부산·경남 지역 불교 사찰 설화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31, 한국고대사학회, 서경문화사, 2003. 『인도에서 온 허왕후, 그 만들어진 신화』, 도서출판 푸른역사, 2017.
- 이종문, 『인각사』, 금향아리, 2010.
- 이희근, 『가락국의 허왕후는 인도 아닌 '한반도 倭'출신』, 월간중앙 6월호, 2000.
- 일연, 문경현 역주, 『삼국유사』, 민속원, 2015.
- 일연, 이민수 옮김,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1996.
- 장정태, 『한국불교와 민간신앙의 습합관계연구-삼국유사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1
- 정만진, 『김유신과 함께 떠나는 삼국여행』, 역사진흥원, 출판년도는 없다.
- 정병삼, 『일연과 삼국유사』, 새누리, 1998
- 정상균, <가락국기>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진농어문연구, 제 9집, 1997.
- 조원영, 『가락국의 수로왕과 허왕후』, 시민시대 통권 256호, 2006.
- 주보돈, 가야사정책연구위원회 엮음, 『가야, 잊혀진 이름 빛나는 유산』, 「가야인, 신라에서 빛나다」, 해안, 2004.
- 주보돈, 『슬픈가야, 만들어진 가야』, 『역사비평』 2019, 가을, 역사문제연구원.
- 村山智順, 『朝鮮の風水』, (朝鮮總督府, 昭和 54), p.276. : 村山智順, 정현우 옮김, 『한국의 풍수』, 1992.
- 최남선, 「삼국유사해제」, 『증보삼국유사』, 서문문화사, 1990.
- 최종철, 『금관 가야왕국』, 미래문화사, 2006.
- 허목, 『보주태후릉비음기(普州太后陵碑陰記)』인조 24년, 1646.

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ical Recognition of Il-yeon

Jang, Jung-Tae

When Heo arrived in Gaya, he told King Suro that he was Princess of Ayutthaguk, a mythical element was incorporated into the historical fact as a bilingual symbol was carved, which first appeared in the structure around the Royal Tomb of King Suro in the mid-Joseon period (1792) during the Joseon Dynasty. This structure is not a restoration of the architecture of the Gaya Kingdom, which was maintained from the Gaya period to the present. The generous academic climate of building more than 1,000 years ago was eventually incorporated into history, with narrative elements excluded. Furthermore, in the 25th year of King Injo 's reign of Joseon, the epitaph of Queen Suro, Bajju, and Heo's functions was extended to Heo's family who lived in similar geographical names in China. Recently, it was transformed into a family myth by a political group set in a certain audience. This phenomenon can be seen as the departure of some researchers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the political community is entering a period of settlement by power. The biggest feature of Heo Wang-hoo 's narrative is its unique change as Chinese culture, Buddhist culture, feng shui, and folk belief elements are mingled throughout the years. Before being recorded in a series of "tipguksi," the original form was met with a variety of cultures and met with transformations, and finally settled into the text that we are meeting now. Behind the changes, it is assumed that the fundamental covering of cultural factors, such as those that were passed on, is inserted into a certain area of the ancestral worship of Gaya figures represented by King Kim Yu-shin and King Munmu. There is a need to reexamine the bilingualism, the patterns and inscriptions found in the tombstones of Queen Heo and the times in which they lived, and the existence of permanence. Just as

monks were mobilized for the royal tombs and the capital city of Hanyang during the Joseon Dynasty, monks will also participate in the renovation of local cultural assets. King Suro's double-words, reproduced by their hands, imitate the symbols used by Buddhist monks in temples, and the theory of links between India and India is a historical record. It can be seen that King Suro's communication with his servants is in the same region and in the same Japanese language. The basic theories of India, Thailand, China, Japan and others are only surmised by a weak assumption. The nomination of Ayuttha is deeply related to the period of compilation of Samguk Yusa and the author of "The Three Kingdoms When Heo arrived in Gaya, he told King Suro that he was Princess of Ayutthaguk, a mythical element was established as a historical record when a bilingual symbol was carved that first appeared in a building near the Royal Tomb of King Suro in the mid-Joseon period (1792)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generous academic climate, in which Joseon's architecture was continued for more than 1,000 years from the Gaya period to the present, was eventually incorporated into history with narrative elements excluded. Furthermore, in the 25th year of King Injo's reign of Joseon, the epitaph of Queen Suro, Bajju, and Heo's functions was extended to Heo's family who lived in similar geographical names in China. Recently, it was transformed into a family myth by a political group set in a certain audience. This phenomenon can be seen as the departure of some researchers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the political community is entering a period of settlement by power. There is a need to reexamine the bilingualism, the patterns and inscriptions found in the tombstones of Queen Heo and the times in which they lived, and the existence of permanence. Just as monks were mobilized to celebrate the capital city of Hanyang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palace complex will also involve monks. King Suro's bilingualism, which was reproduced by their hands, mimics the pattern used by Buddhist monks in temples, and the theory of linking India with bilingualism is a historical record of the novel's.

【Key words】 Heo Empress, king Kim Suro, Gaya, Pasa Stone Tower, The Boju Empress Dowager, Il-yeon, samgukyusa.